

2월 27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2월 27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예산안에 올고 웃고` 뉴욕 하락..다우 1.2%↓ [다우: 7,182.08 (-1.22%)</p>	<p>26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이틀째 하락세로 마감.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2,500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주 주도하에 강세를 나타내던 주요 지수는 오후 들어 상승 탄력을 잃은 뒤 장 마감을 1시간 남짓 앞두고 하락권으로 떨어짐. 경제지표는 `사상 최악` 행진을 지속. 지난주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예상 밖의 급증세를 나타내며 27년 만에 최대치로 치솟아 고용 침체가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줬음. 1월 신규주택판매건수는 사상 최저 행진을 지속했고, 내구재 주문도 사상 최장 기간인 6개월 연속 감소세.</p>
<p>오바마 의회에 예산안 제출..금융구제 추가 2500억弗 편성</p>	<p>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초안에 따르면 2009년 회계연도(2008년10월1일~2009년9월30일) 재정적자는 1조7,500억 달러로 추정.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2.3%에 해당되는 규모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 그러나 2010년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GDP 대비 8%인 1조1,700억 달러로 축소하기로 함. 오바마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비 지출을 줄이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한다는 방침. 오바마 정부는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2,500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의료보험 개혁을 위해 향후 10년간 6,35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함.</p>
<p>신규실업수당청구 `예 상밖 급증`..27년 최 대`</p>	<p>노동부는 지난주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21일 마감기준)가 전주대비 3만 6,000명(계절조정) 증가한 66만7,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힘. 이는 지난 1982년 10월 이후 최대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86% 많은 수준. 1주 이상 실업수당청구건수(14일 마감기준)는 11만4,000명 늘어난 511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신규주택판매는 사상 최저치 행진을 지속. 상무부는 1월 신규주택판매가 연율 30만9,000채(계절조정)로 전월대비 10.2% 급감했다고 밝힘. 내구재 주문은 사상 최장 기간인 6개월 연속 감소. 1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대비 5.2% 감소.</p>
<p>국제유가 랠리 지속..배 럴당 45弗 [WTI: \$45.22 (+\$2.72)</p>	<p>국제유가가 급등세를 지속하며 배럴당 45달러 선까지 오름. 특히 가격 하락 및 재고 축소 영향으로 휘발유 가격이 최근 3개월래 최고치로 오른 점이 영향을 미침. 휘발유 재고가 감소한 반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유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풀이. 실제 지난 지난 주(20일 마감) 휘발유 재고가 전주대비 340만배럴 감소한 반면 최근 4주간 미국의 휘발유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1.7% 증가.</p>

제목	주요 내용
英정부, 금융기관 국유화 수순 밟는다	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최대 은행인 RBS에 대한 정부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지난해 사임한 프레드 굿윈 전 최고경영자(CEO)가 거액의 연금을 포기하게 만드는 등 '은행 국유화' 절차를 진행 중.
S&P, 日 올해 -4% 성장..전후 최악	일본 경제가 올해 들어 마이너스 4% 성장을 기록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국제 신용등급 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26일 전망. 오가와 다카히라 애널리스트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수요의 급감으로 인해 일본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봄.
중국도 조기 반등 위험 신호	글로벌 동반 침체의 유일한 '희망'으로 부상한 중국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조기 경제 회복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등장함에 따라 중국 증시의 랠리에 위험 신호. 실제로 중국 은행들은 지난 1월 1조6,200만 위안 규모의 신규 대출을 단행했지만 기업들은 지출보다는 현금을 비축하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산업의 척도인 철강가격의 경우도 재고가 급증하면서 회복세가 주춤. 가장 큰 문제는 무역 위축으로 보임.
실질소득. 소비 마이너스.. 환란 후 최악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에 따르면 물가상승을 감안한 작년 4분기 전국가구(2인 이상)의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302만3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줄었음. 작년 4분기 실질소비는 203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래 4분기 기준으로 실질 소득과 소비가 동시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같은 현상은 작년 9월 불거진 미국발 금융위기가 4분기 이후 국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구조조정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됨.
경상수지 4개월만에 적자전환..`수출 타격`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중 국제수지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13억6,150만달러 적자를 기록. 지난해 10월 극적으로 흑자 전환하면서 월간 기준 사상 최대폭인 47억5,3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후 11월 19억달러, 12월 8억6,000만달러 등 흑자규모를 줄이다 결국 적자로 돌아선 것임. 글로벌 경기침체에 설 연휴까지 겹쳐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 통관기준 수출은 213억7,000만달러로 전월 271억2,000만달러에 비해 58억달러 가량 감소했음.
국내 주식투자자 400만명.....하이닉스 32만명 `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6일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1,73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주주는 1,237만명으로, 중복투자자를 제외하면 실제 투자자는 399만6,45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음. 이는 2007년보다 9.7% 증가한 것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주주가 가장 많은 회사는 하이닉스로 32만1,517명에 달했음. STX팬오션과 삼성중공업도 주주가 20만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